

지난주 토요일 후배의 소개로 테마기행이라는 것을 처음 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문화를 나누는 곳’ 즉 사색의 향기 문화원은 이제 그 역사가 7년이 되었다. 향기 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아름다운 글들을 보내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문화 나눔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모임도 가지고 있다.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그 문화를 공유하는 138만의 회원을 가진 비영리단체이다. (1)문학기행 : 훌륭한 작가를 찾아내어 그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여행. (2)도보기행 : 들레길이나 올레길 같이 아름다운 명소의 길을 찾아 10km 나 14km의 장소를 정해서 그 구간을 걷는 여행. (3)테마기행 : 테마를 정하여 여행지를 결정하는 것.

제18회 테마여행(2011.11) ‘늦가을에 떠나는 남도여행’ 가을 비 내린 후의 아침은 쌀쌀하기만 합니다.

짧게 불꽃을 피우는 계절이라 잠시 잠깐의 시간들이지만 가을은 참 많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가을의 또 하나의 코드는 갈대입니다. 갈대가 가장 아름답게 흔들릴 때 우리들도 때로는 흔들리면서 계절을 지나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전라도 순천의 낙안읍성을 탐방하고 여의도 면적 크기의 순천만 갈대밭을 장난감 같은 자그마한

기차를 타고 돌았다.

순천만은 남해안 지역에 발달한 연안습지 중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하며 갯벌에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조군락, S자형수로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해안 생태경관을 보여주는 경승지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순천문학관’이었다. 내가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작고한 정채봉 시인과 김승옥 문학관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여수시의 문학인들이 몇분 나와 떠날 때까지 우리일행을 정중히 안내해주고 손수지으신 詩集까지도 한권씩 선물해 주었다. 유홍준씨가 사찰로서 가장 좋아했다는 선암사도 구경했다. 선암사 들어가는 입구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과연 우리 고성을 ‘테마여행’이라는 차원에서 알린다고 하면 무엇을, 어떡해, 어



### 남숙희 칼럼

칼럼위원, 시인

## 테마기행

떤 방법으로 멋지게 알려야 할까?

화진포의 일출, 송지호의 작은 오솔길, 왕곡마을, 유서깊은 건봉사, 청간정, 해양심층수, 거진항의 아침풍경, 거진등대쪽의 등산로, 지금 거의 만들어져가고 있는 반암리에서 동호리까지의 해변로, DMZ, 최전방의 마지막에 위치한 명파초등학교 그리고 죽정리에 접거하여 조용히 살고 계시는 남전 선생님의 서예생활, 반암리에서 열심히 팔만대장경을 서각하시는 이선생님, 우리 고장의 예인은 누구이며, 우리 고장의 독특한 테마가 되는 관광지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통로를 통하여 활성화해야 할까?

우리들은 다같이 집중해서 고민해야 하고 다같이 그 방법을 찾아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가 없다. 인재가 없다 등 갖가지 푸념만 쏟아 내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책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고 우리자손이 영광스럽고 자신있게 살아야 할 이 고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경기가 없다. 인재가 없다 등 갖가지 푸념만 쏟아 내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책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통해서 사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고 우리자손이 영광스럽고 자신있게 살아야 할 이 고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나는 내 고향 송정리를 너무나 무사 사랑한다. 고성도 사랑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너무 사랑한다. 그러나 가끔씩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테마가 있는 누구나 와 보고 싶어하는 우리고장을 만들어 보자.

-햇살이 창문안으로 가득히 들어오는 화포리에서-

부품 희망과 기대를 갖고 힘차게 출발한 2011년 신묘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보다 발전적인 새해를 설계하는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본 의원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고성군의 역사적 정체성 상실뿐 아니라 경제적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고성군이 인근시와 통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황종국 군수님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고성군 부흥의 기회 영원히 빼앗길 것

우리 고성군은 신라때부터 고성군과 간성군으로 내려오다가 1919년 간성군이 폐지되고 고성군으로 개칭되면서 당시 고성군이던 죽왕면·토성면이 양양군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양양군 속초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양양군의 죽왕면·토성면이 고성군에 편입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고성군은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의 분단군으로서 분단의 아픔과 실형민의 통일염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60여년간 평화통일의 그 날만을 기다리며 접경지역이라는 어려움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금강산 자락 아래에 위치한 남·북 고성은 6.25전쟁으로 분단되었지만 함께 생활한 역사와 문화성을 갖고 있으며 통일 후 옛 고성의 명성을 되찾고 예부터

이어져온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분단의 현장으로, 통일의 길목으로 남·북 고성이 비무장지대를 공유하고 있어 통일 후 자연생태계와 금강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등을 보존하고 생명존중, 평화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산교육장으로 공동 개발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평화통일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성군민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통일고성이 가져다 줄 고성군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사라지고 고성군 부흥의 기회를 영원히 빼앗겨 통한의 세월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인근시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군이 통합되면 소득이 높고, 젊고 자녀가 있는 계층은 교육·문화적 편리를 위하여 인근시로 이주하게 되고 고성군의 소매업, 음

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게 되고 이는 다시 소득이 낮은 주민이 일자리를 찾아 고성군을 떠나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어 고성군은 황폐화되어 죽음의 도시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집중하게 되는 인근시에는 새로운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재정투자가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이 되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 선각자의 입장에서 한마음으로 대처하자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백범 김구 선생님이 즐겨 썼던 선각자의 가르침이 생각납니다.

“눈 오는 별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발걸음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 오늘 내가 남긴 자국은 드디어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말씀은 당면한 위기를 일신의 안위나 현실 정치의 이해관계보다 후손들에게 남겨줄 역사를 강조하신 말씀으로, 최근 시군통합에 대한 문제점과 농촌지역의 불이익이 나타남에 따라 통합을 적극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성적 폐배주의 또는 자기 합리화에 의한 통합에 대한 동조나 단순한 경제논리나 행정의 효율성으로 고성군민에게 정신적,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선각자의 입장에서 한마음으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95년도 도농통합을 논의 할 때도 북고성이 존재하고 있고 통일 후 북고성과 통합해야 하는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주민투표 대상에서도 제외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남·북 고성이 가지는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고성군이 통합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와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고성군의회 홍보선 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21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한 것입니다.

### 특별기고

홍봉선 고성군의회 의원



## 통합되면 삶의 질 향상에 큰 지장